

하늘다람쥐

51

NEWSLETTER

MAIN ISSUE
기능적 자연?



목차

1. 다람쥐의 인사 ——04
2. 다람쥐 카메라 ——06
3. 하늘다람쥐가 물어오는 생명의토리 #51 ——16
유척 鋤尺
4. 인포파일 ——24
2025 생명다양성재단 기획전시 — 끈끈이라 합디다!
5. 동물왈 ——38
6. 생명특집 ——39
자연의 범주 — ‘중립성’에 관하여
7. 생명 심화 ——62
경제적 가치로 환원된 자연의 의미와 한계
8. 자연일기 ——70

9. 생명다양성재단 활동소식 ——74

10. 뿌리와 새싹 소식 ——78

11. 지구별 다람쥐 소식 ——82

12. 다양성의 공간 ——85

포르투갈 리와일딩 사이트 '코아 계곡'

13. 도토리 서재 ——96

나무가 쿵 쓰러지면

14. 후원 ——99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다람쥐예요.

요즘 날씨가 많이 살 만해져서 좋지 않으세요?
푹 힘들었던 이번 여름이 이제야 좀 누그러지는 것
같네요. 아침저녁이 꽤 선선해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날씨와 관계된 것이야말로 이젠 정말 하나도
작은게 아니잖아요. 기후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극단적으로 치달고 있는 상황은 지구 전체의
위기라는 너무나 큰 것이니까요.

우리 동물들은 사실 제대로 이해는 못하고 있어요.
대체 인간들은 어떻게 하길래 세상 전체를 들었다
놔다 하는 건지 말이죠. 동물들은 자연 속 자신의
위치에서 그저 살아갈 뿐 그 큰 자연에 대해
이러쿭저러쿭 하지 않는답니다.

그에 비해 인간들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 큰 자연에 대해 좋다, 나쁘다 가르고 판단하는

걸 서슴없이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땐 그런 종류의 판단을 일체 하지 않는다면서 지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연을 본다고 하더군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잔뜩 무슨 숫자를 들먹이고 딱딱한 말로 나도 결국 하고 싶은대로 재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단순해서 그런 건지. 그래도 여러분만큼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아 꺼냅니다. 자연에 대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안 하는 마음으로 하늘다람쥐 51호 함께 시작해봐요!



다람쥐 카메라

우리 생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해 봤어요.

제가 찍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받은 사진도 있어요.

hello@diversityinlife.org로 한줄 소개와
같이 보내주시면 실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생물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가보지 못한 곳에서 여러분의 관점으로 찍은
사진들을 기대할게요!

사진 | 닥터구리 최윤정

청설모의 눈을 자세히 바라본 적이 있나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반짝! 아주 귀엽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 2025



사진 | 파랑이는 관찰자



뿔구르르 진흙에서 목욕하는 버팔로

사진 | 이주현



저도 밥주세요 - 로제타저어새

사진 | 이주현



육아방 마감공사중인 줄무늬감탕벌

사진 | 성민규



호리병 모양 육아방을 만든 큰호리병벌 사진 | 성민규



야생신탁 땅 주변 탐사 중 만난 검은실면지
(*Stemonitis fusca*)

사진 | 박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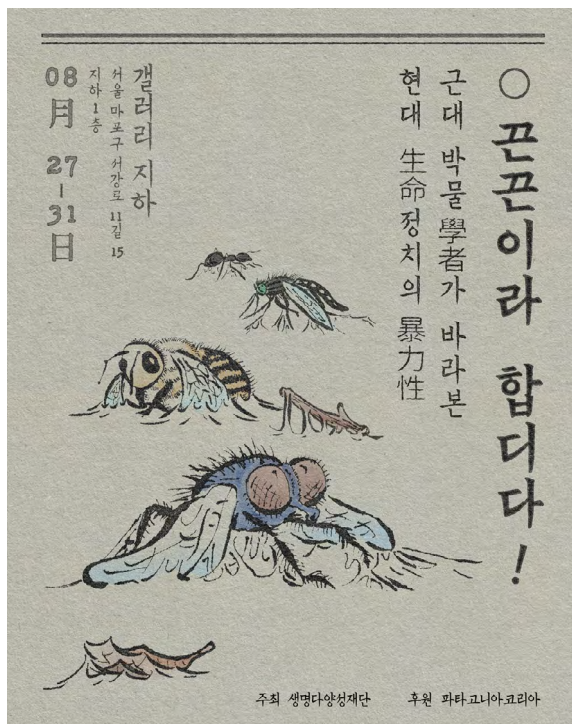
일본 미야자키시 다카히호 협곡에서
만난 무지개

사진 | 박지연



2025 생명다양성재단 기획전시 — 끈끈이라 합디다!

‘끈끈이트랩’이라는 방제도구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생명다양성재단의 기획전시
〈끈끈이라 합디다!〉가 지난 8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날짜	2025.08.27 - 2025.08.31
장소	갤러리 지하
주최	생명다양성재단
후원	파타고니아코리아

#1— 전시의 화자

본 전시는 가상의 화자- 근대 박물학자의 시선을 도입하여 서사를 전개한다. 왜 근대 박물학자인가? 첫째, 낯선 화자의 도입을 통해 ‘끈끈이트랩’이라는 현대적 방제 도구를 더 ‘낯선’ 시선, ‘문제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의도했다. 둘째, 지금은 사라진 박물학자라는 직업의 특징을 살려 끈끈이라는 이분법적 생명정치(어떤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인간 권력의 발동)의 도구를 근대-현대를 넘나들며 당대 자연관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2 — 박물학자의 편지

전시의 서사는 가상 화자(박물학자)의 편지를 통한 발화로 전개된다. 박물학자들은 각각의 생명이 가진 고유함을 드러내고, 이를 수집·기록·묘사 등의 형태로 표현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생명의 다양성을 짓밟고,

무차별적으로 포획해 살해하는 도구를 만난다면 과연 어떤 감상을 남길까?

이 박물학자는 서울 은평의 봉산에 올라 끈끈이트랩을 처음 만난다. 처음 보는 기이한 물성의 도구에 놀라움을 표현한다. 또 이 낯선 도구의 폐해를 한 눈에 알아보게 된다.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무차별적으로 포획되어 죽어 매달린 것이다. 그는 자신이 수집과 기록을 통해 드러내려 했던 자연세계의 다양성이 이 보잘것없는 도구로 인해 일거에 제거,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충격을 편지에 그대로 남긴다. 그러면서 박물학자다운 다각도의 탐구를 이어나간다. 이 도구의 물성과 구조, 설치 현황, 희생된 생물들의 피해 통계 등의 자료들이 편지와 함께 기록으로 남게 된다.

#3 — 박물학자의 기록

근대 박물학적 기술과 묘사로 끈끈이트랩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 도구는 비가 와도 씻기지 않는 강력한 접착물질이 발라져 있어,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작은 생명들을 사살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설치된 끈끈이트랩은 박물학자의 탐구 대상지인 은평 봉산에서만 7km 연장의 등산로와 산의 서쪽 사면을 온통 뒤덮고 있다. 사실상 은평구의 서쪽이 모두 덮인, 끈끈이의 장벽이 생긴 셈이다. 박물학자는 이것을 ‘죽음의 능선’이라고 부르며, 130만 개체의 생명이 총 5,000그루가 넘는 나무에서 포획되어 죽어감을 기록했다.

박물학자는 끈끈이트랩에 희생된 모든 생명들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120종류가 넘는 희생된 생명들의 종 목록을 남기고, 그 다양성을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시아노타입(Cyanotype, 생물의 실루엣을 남기는 비은염 사진 기록 기법)을 사용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끈끈이 生物相의 記錄

檀紀 4358年 6月13日

烽山

지난 편지에 이어, 이번에는 포살된 동물
들의 실상을 담구한 내용을 상세히 짚어
보냅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이 《끈끈이》
관 것은 관지 몇 종의 蠹蟲만이 아니라,
실로 놀라우리만큼 각종다양한 곤충들이
무리별적으로 볼들려 있습니다. 파리目 개체
들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갑정파리, 털파리,
집파리, 과실파리류 등이 무리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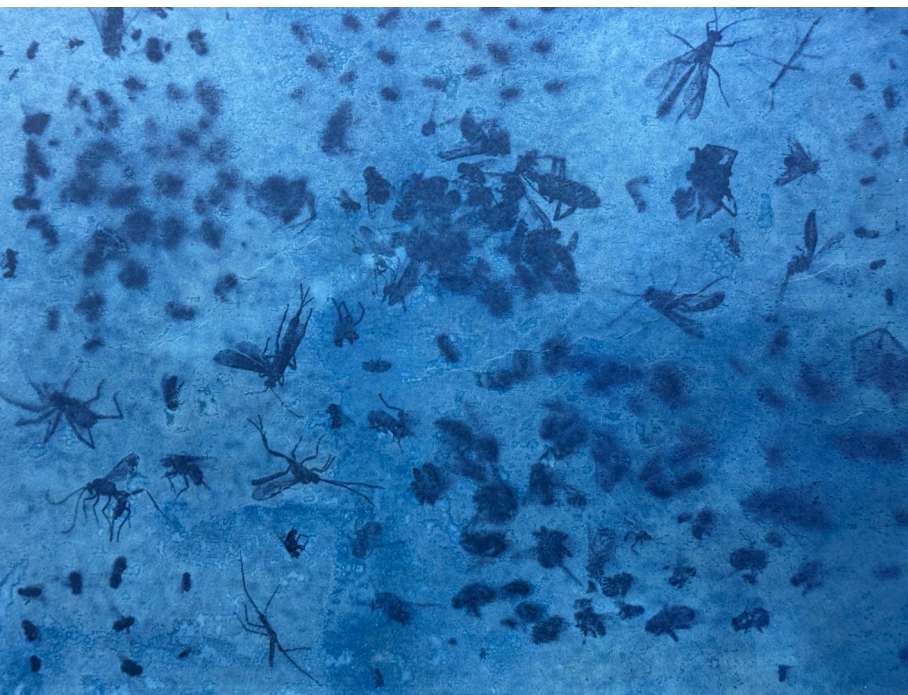
아마, 산보길의 탁 트인 공간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는 비행을 하던 중 모두 포살된

양입니다. 작은 나비目, 딱정벌리目,
벌目, 개미 무리, 거미類 가지도 전혀 가리지
않고 포획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희생체의 면면〉이라는 제목의 편지는 형태기술적 삽화 (Scientific illustration)와 포획된 생명들의 초상을 담은 사진작업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종 목록으로 확인된 다양성 안에서 개별적인 개체들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이 숲에서 벌어지는 생태적 현상을 기술하기도 하는 작품이다.

원래는 보석같은 화려한 몸치장과 경쾌한 움직임을 보이는 청벌류(사치청벌)가 잔뜩 움츠러들고 다리가 굵은 채로 접착면에 붙은 장면, 파리가 끈끈이트랩 위에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알을 낳는 장면 등이 사진 작업을 통해 드러난다. 삽화와 함께 기재된 붉은등우단털파리(리브버그)와 대벌레의 대발생은 박물학자의 시선에서 생태적 붕괴의 징후로 읽혀지기도 한다. 갈새우게거미 등 나무 껍질을 서식처 삼아 살아가는 동물들의 피할 수 없는 희생도 문제적으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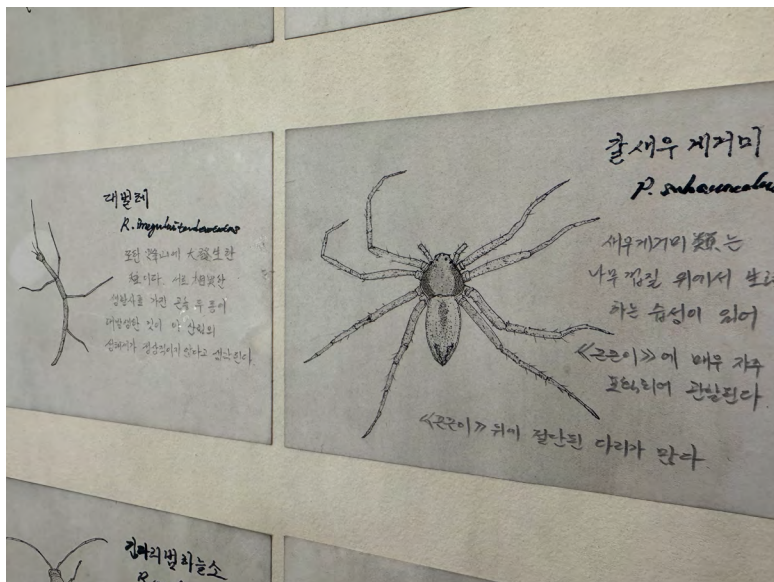
끈끈이라 합디다!



인포 파일



끈끈이라 합디다!



#4 — 끈끈이 유해

다음 전시물에서는 끈끈이에 붙잡힌 생명들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실제 나무 한 그루에서 채집한 유해를 프레파라트(슬라이드와 커버 글라스로 끼워넣는 표본방식)로 제작한 것이다. 마치 유리 관에 담긴 모습의 유해들이다. 끈끈이에 붙어 있는 것은 거무튀튀한 덩어리들인데, 그것들을 수습하여 놓은 ‘관’을 보면 모두 색도 모양도 다른,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다. 관람객들은 비치된 조명박스와 돋보기, 현미경을 통해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목격한다.



#5 — 박물학자의 자화상



마지막 전시물로, 인간 전신을 본뜬 조형물이 끈끈이에 휘감긴 채로 앉아있다. 자연 생태계 위에 삶을 의존하는 인간. 자연 생태계의 절반 이상을 이루는 곤충을 비롯해 작은 생명들의 생명망을 파괴하는 끈끈이 트랩. 인간은 ‘끈끈이 트랩’으로 대표되는 자연과의 적대적 관계 설정을 통해 스스로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박물학자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생각하건대 <끈끈이>에 매달린 것은 벌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학문이 저기에 매달렸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저기에 매달린 것입니다.”

#6 — 방명록

전시 공간의 방명록도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끈끈이를 통해 구현했다. 관람객들은 비치된 쪽지에 메시지를 남기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잡동사니, 명함 등을 붙여 방명록을 대신했다. 끈끈이에 붙은 생명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 생명다양성재단이 추진하는 끈끈이 반대 캠페인에 대한 응원 등 다양한 메시지가 끈끈이의 끈적한 표면 위에 남겨졌다.

“곤충들아, 끈끈이 조심해라!” 이O지(성미산학교)

“이 죽음들을 기억하고 애도합니다” 익명

“날이 끈끈한 게 아니라, 내 흔적이 끈끈했구나.” 노O우

“우리에게 ‘끈끈이’가 아니라, ‘끈끈한’ 연결과 연대가 필요하다.” 익명

“내가 끈끈이에 붙어 서서히 죽어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시간은 어떨까요...” 홍O전

“우리 같이 좀 살아요” “마지막에 끈끈이에 걸리는 건 인간” 익명 (성미산학교)



동무 와, 글 2림 조씨아저씨



생명 특집

자연의 범주 —
‘중립성’에 관하여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없는 듯하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다음으로 말이다. 매일 자연을 접하면서 실제로 보고 있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드는 생각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물음이기도 하다. 자연에 의지하여, 자연에 둘러싸여,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생명으로서 사실상 자연이 전부인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라니? 한 마디로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이 얼마나 성립할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한다. 심지어는 바라보는 행위 자체도 자연의 일부인데 말이다.

하지만 그런 철학적 고민을 잠시 제쳐 놓고 현실을 보면 우리는 이미 자연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 구분하고, 판단하고 있다. 어쩌면 그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인류의 뇌가 오랫동안 진화한 방식이

주변의 사물과 현상을 효과적으로 포착, 등재, 처리하기 위해서 나름의 분류 기전을 인지능력의 토대로 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사고적 체계 없이는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울 공산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그 판단들이 다양한 상태로 산재하며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갈래로 모이고 모여 하나의 커다란 경향성을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어떤 사회적 통념이 자연관을 지배할 때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자연의 범주화 문제이다.

지난 봄과 여름 호에서 우리는 자연의 범주화 중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다루었다. 유해동물로 대변되는 부정적 범주화와 지속가능개발로 대표되는 긍정적 범주화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각각의 관점이 갖는 문제들을 살펴 보았다. 자연에 대한 부정과 긍정적 범주화 다음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질문은 바로 중립성

에 관한 것이다. 자연에 대한 중립적인 관점의 범주화는 과연 어떠한가? 중립성이 최소한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판단과 동떨어진 개념이라면 그나마 괜찮은 편이 아닌가 하는 가정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된다. 가령 자연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과학이야말로 자연을 중립적인 대상으로 상정하고 접근하는 대표적인 분야인데, 그렇다면 중립적인 범주화는 적어도 덮어놓고 긍정 또는 부정적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보다는 나은 관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학으로 대변되는 관점이 상정하는 중립적 범주화는 또 그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시작부터 가치 지향적이지는 않으나 중립적인 언어와 체계로 기술한 과학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특정 가치의 중요성 또는 우월성을 매우 공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가령 자연 전반에 걸친 기능주의적 사고가 자연의 소위 중립적 범주화에서 발생하

고 있음을 보면서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동식물 또는 서식지가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자연에 대해 가장 흔히 듣는 종류의 정보가 되었다. 벌이 꽃가루를 매개하고,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제비가 해충을 먹는다는 등 어떤 종이 수행하는 이로운 기능은 각종 기사와 다큐멘터리에서 절찬리에 소개된다. 이제는 자연에 관한 콘텐츠의 가장 주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회자되고 있는 이러한 기능성이 가장 두드러진 용도는 해당 생물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때이다. 개발 대 보전의 대결구도 속에서 어떤 생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그 생물이 제공하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기능 때문이라는 논리가 자주 동원된다. 즉, 이러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보호 할만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능과 상관없는 다른 생물들은? 기능은커녕 아직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생태계의 수많은 다른 구성원들은 어떨까? 자연

에 대한 기능적 고려는 필요하긴 하나,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자연 보전에 대한 동기 부여 상실이 우려되고 철학이 빈곤해지는 문제들이 이미 지적되고 있다.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접근법이 낳을 수 있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자연에 대한 소위 중립적인 범주화를 표방한 여러 관점과 접근법들,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다수 발견된다. 지극히 사실적 접근이나 기술적 묘사, 행정적 체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연의 범주화가 곳곳에 팽배하다. 어쩌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자연의 범주화적 인식이 정말로 문제인지도 모른다. 대상화를 가장 손쉽게 하게끔 되는 경로가 바로 이런 포괄적 범주화에서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아마존 원주민들은 ‘동물’이나 ‘환경’에 해당하는 포

팔적 범주 언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바로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일까? 답이 무엇이 됐든, 또는 있든 없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자연은 우리가 어떻게 재단하든 간에 우리랑 상관 없이 존재한다. 그저 스스로 그러하게, 있을 뿐이다.

Lantremange, H., 2024. Functionalism in ecology and economics: Epistemological affinities and temptations. *Biological Conservation*, 298, p.110762.

Deliège, G. and Neuteleers, S., 2015. Should biodiversity be useful? Scope and limits of ecosystem services as an argument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Environmental Values*, 24(2), pp.165–182.

김한민. 2025. 언월딩-아마존에서 배우는 세계 허물기. 워크룸.

생명 특집

자연을
분류한다는 것

우리는 자연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언제나 선택적이다. 산과 강, 숲과 바다를 바라보며 경외심을 품는 동시에, 우리는 자연을 ‘등급’으로 나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고, 3등급 지역은 개발 논의의 여지가 있다. 멸종위기종은 법의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 비위기종은 무관심 속에 놓인다. 심지어 어떤 생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문화재 반열에 오르기도 하지만 어떤 생물은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참사를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든 범주화하고, 그 범주에 따라 차등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중립적인 관점의 범주화로 자연을 보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등급 외’의 자연은 보호받지 못한다.

‘생태자연도’는 국토환경성 평가를 위한 도구다. 환경부는 위성 이미지, 생물서식지, 식생 분포 등을 종합하여 자연을 1~3등

급으로 분류한다. 그 기준은 정량적이며 과학적인 척도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정의된다. 마찬가지로 멸종위기종 목록이나 천연기념물 지정은 생물의 '가치'를 사람이 보전할 만한 것으로 간주했을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는 자연 보호에 있어 분명 필수적인 장치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자연을 객관화하고 등급화하는 행위가 과연 중립적인가라는 질문을 낳는다. 2등급 자연은 1등급보다 덜 가치 있는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새는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가? 등급을 매긴다는 행위는 보호를 위한 전략일 수 있으나, 자연을 본질적으로 도구화하는 관점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을 중립적으로 범주화하기 위해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틀에서 기능의 집합으로 본다. 습지는 '탄소흡수 기능', 숲은 '산림자원 기능', 동식물은 '생태계 균형 기능'을 수행한

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결국 인간의 인식 틀 속에서만 존재한다. 자연이 정말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갖고 기능을 수행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의도를 가진 존재로 간주하는 셈이 된다.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자연은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능주의적 자연관은 자연을 관리 대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진 존재론적 고유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멸종위기종이 보호받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 생물이 ‘희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희귀성은 존재론적 가치보다는 심리적 희소성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 팬더, 수달, 산양 같은 동물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반면, 외형이 평범하거나 흔한 생명체는 보호의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밀려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가치’ 부여 자체가 미학적, 문화적, 경제적 기준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연은 그 자체로 존중받기보다는 우리가 부여한 의미에 따라 그 위상이 결정되기도 한다.

생태자연도나 멸종위기종 목록 같은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것이 없다면 개발의 논리와 맞설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제도가 자연을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환원시키는 측면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 자연은 기능도 없고, 등급도 없다. 생명을, 자연을 구분하고 서열화하는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고정된 틀이 아니다. 자연은 인간의 분류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할 뿐이다. 자연과의 윤리적인 관계성을 회복하고 존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명 특집

숲이
공기청정기?

“숲은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천연 공기청정기다”

이 오래된 메타포는 환경보호 담론에서 익숙하게 반복되었다. 도시의 회색 공기 속에서 초록의 숲을 ‘청정기’로 상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었고, 실제로 숲은 미세먼지 흡착과 오염물을 정화해주어 대기 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숲을 오직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기능으로만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숲을 ‘도구’로만 바라보게 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 메타포는 더욱 진화했다. 이제 숲은 “탄소 통조림”으로, 갯벌은 “블루카본 저장고”로 불린다. 생태계는 오로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로 축소된다. 이 과정에서 숲과 갯벌이 지닌 다층적인 관계망과 역사적 의미, 문화적/생태적 고유성은 뒷전으로 밀린다. 그들은 단지 기

후정책과 시장 논리 속에서 교환 가능한 숫자로 환원된다.

은유는 사고를 열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고의 폭을 제한한다. 공기청정기, 탄소 통조림, 블루카본이라는 표현은 대중의 이해를 돕지만, 동시에 생태계를 단일한 기계장치처럼 상상하게 만든다. 숲은 탄소를 담아두는 용기이고, 갯벌은 지구의 필터이며, 바다는 탄소 배출권 시장의 계산기다.

혹자는 대중과 자연 보전에 관한 각종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 생태계가 주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기능주의적 시각은 보전 정책에서도 위험하다. 실제로 탄소 흡수량이 떨어지는 숲은 가치 없는 숲으로 간주되어, 산림 당국의 ‘갱신 대상지’가 되고, 탄소 저장 효과가 미미한 생태계는 보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예컨

대 평균 기온이 올라갈수록, 습지가 오히려 메탄 등의 온실가스를 내뿜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습지 보전 정책의 논리를 위협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숲과 갯벌은 결코 단일한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다. 그곳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얹혀 살아가는 무대이며, 수많은 비인간 존재들끼리,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이 관계 맺는 자리이다. 탄소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관계적 가치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저장고’나 ‘필터’로만 부를 때, 보전의 명분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다른 언어다. 기능적 은유가 아닌, 관계와 공존을 드러내는 언어이다. 숲을 탄소 통조림이 아닌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다름없는 비인간 존재들의 삶터로, 갯벌을 블루 카본 창고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과 역사가 진흙

이라는 무대로 말미암아 등장하는 집합적 생명의 터전으로 부르는 언어다. 기능적 언어를 벗어나 관계의 언어를 회복할 때, 우리는 환경과 기후정책의 도구를 넘어, 존재론적 윤리로서의 보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언어가 바뀔 때 비로소 우리가 세계와 맺는 관계가 달라진다.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숲과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명 특집

선별되지 않은
존재들의 땅,
야생신탁

육상 생활에 적합하게 진화해 온 현생 인류에게 땅은 존재의 기반이다. 인류는 다른 육상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땅에 의지하여 살아왔다. 땅에서 난 것을 먹고 땅 위에 집을 짓고 가족을 이루었으며 말 그대로 땅에 발을 딛고 살아왔다. 자신이 태어나 살아온 땅을 자신의 뿌리로 인식하며 살아온 이들은 어느 계절에 어디로 가면 어떤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지, 의약용 식물을 찾을 수 있는지, 큰 동물이 찾아와 위험한 곳은 어디 있는지 잘 알았다. 그러한 구체적인 지식은 땅에 대한 친밀감으로 이어졌다. 그 땅이 안녕해야 자신도, 가족들도, 이웃들도 모두 안녕할 수 있었으므로 땅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컸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땅은 단지 누군가의 재산으로 취급된다. 땅은 부동산이라 불리며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다. 땅이 부동산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토지가 상품이

되면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토지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를, 파괴할 권리까지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땅에 대한 착취가 정당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토지소유권을 갖는 자는 심각한 토양 오염을 초래하는 식의 법적 금지 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의 토지 이용도 가능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땅의 안녕은 더이상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관심사가 아니게 되었다. 안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땅은 따로 있다. 국립공원같은 곳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나라에서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국립공원은 풍부한 종다양성을 지닌 자연 생태지역으로서, 미래를 위한 유전자원의 보고로서, 국민의 휴식처이자 교육의 장으로서, 연구 및 조사를 위한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국립

공원에는 국내 생물 기록종의 40.9%가, 국내 멸종위기종의 68%에 달하는 종이 서식·분포한다.(2023년 기준) 생태계교란 생물은 지속적인 분포 조사와 더불어 제거 작업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된다.

국립공원은 어쩐지 박물관과도 닮았다. 최후의 보루와 같은 이미지가 있고, 두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도 비슷하다. 그 이미지와 기능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 박물관법에서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이라고 정의된다. 둘다 어떤 대상을 선별적으로 보존 혹은 보전하며, 그 보호의 대상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서 관리된다.

그런데 그 선별에서 밀려난 존재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체수가 너무 많다거나 해롭다거나 자생종이 아니라거나 하는 존재들 말이다. 그 존재들과 그들이 사는 서식지는 보호구역과 보호지역이 아닌 부동산 사유지 등에 널리, 조금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 그 아슬아슬함은 어떤 생물이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이 되느냐, 유해야생생물이 되느냐는 한 곳 차이라는 데 있다. 두 개념은 언뜻 양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생물의 등 뒤에는 언제나 유해야생동물이라는 낙인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생신탁이라는 땅은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산 후 그 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야생에게 위임한 공간이다. 부동산이라는 폭력적인 굴레를 막 벗어던진 야생신탁 땅은 ‘보호’구역, 공유지 등과 같은 개념들의 경계에서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가

고 있다. 그곳에선 어떤 존재도 멸종위기종, 유해야생생물, 생태계교란종 등으로 불리지 않는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사람들은 땅과의 연대를 회복하기 위해 그곳에 간다. 그곳에 가 그 땅에 사는 생명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변화를 지켜보며 야생이 만 들어가는 길을 응원한다.

문득 ‘야생신탁 땅은 유용한가? 무용한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여러 답을 생각하다가 이 질문이 얼마나 무용한지를 깨달았다. 우리는 존재를 두고 쓸모를 따지는 일에 어찌 이리 무섭도록 익숙한가. 그것은 또 얼마나 무례한가. 유용함과 무용함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라면 나는 차라리 무용함을 택하고 싶다.

생명다양성재단 활동 소식

❶ <유해동물 외교단> 정책 캠페인(러브버그, 꽃사슴, 오소리)

<유해동물 외교단>은 최근 잇따르는 정부와 행정 당국의 잘못된 정책 수립에 대한 대응을 진행해왔다.

1. 서울시 의회에서 반민주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러브버그 방지법’이 수도권 러브버그 확산으로 말미암아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되게 된 것
2. 환경부의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신규 지정’
3. 하남시의 환경부에 대한 ‘오소리 유해동물 지정 건의’에 대한 일련의 대응과 반대 캠페인이다.

러브버그 사태 직후 실종된 생태적 논의를 공론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카드뉴스, 꽃사슴 지정반대를 위한 의견개진 운동, 오소리 유해동물

지정 건의 철회를 위한 시민 반대서명 등 <유해동물 외교단>은 상반기 동안 ‘유해동물’이라는 제도적 명칭과 그에 따른 정책들이 생태적 관점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 왔다. 앞으로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러한 ‘나쁜 정책’들을 저지하고,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❷ <유해동물 외교단> 읽기모임 시작

8월부터 시작된 <유해동물 외교단> 읽기모임은 모임원 10명이 함께 프랑스의 생태철학자 밥티스트

모리조의 ‘야생 외교(Wild diplomacy)’를 읽는다. 모임원들은 책을 함께 읽으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관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인간-동물 관계 패러다임인 ‘외교적 관계’의 사유와 실천을 모색한다. 읽기모임은 10월까지 총 6주차 이어지고, 책이 끝난 후 휴식기를 가지고 새로운 참가자를 모집하여 재개할 예정이다.

③ 생명다양성재단 지원사업 <떼창> 과제 선정

생명다양성재단은 그 해의 주요 생명/생태/환경 주제를 한 가지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자 하는 연구자 혹은 활동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떼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과제의 주제는 “곤충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통념에 대항하는 시도”로, “버그를 러브하기: 곤충이 되기 위한 플래시몹”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과제는 도심 속에서 약

20명의 퍼포머가 ‘곤충 되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 확산하며 연극 공연과 ‘곤충 되기’ 가이드북 제작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이다. 곤충을 불편하고 해로운 존재로 낙인찍는 통념에 맞서, 예술적 언어와 몸짓을 통해 인간과 곤충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상상하고, 시민들과 공존의 감각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④ 리움 미술관 어린이 생태예술교육 2차 프로그램 ‘생태 공학자’

지난 5월부터 리움 미술관에서 진행된 생명다양성재단의 어린이 생태예술교육의 첫 번째 프로그램 ‘동물 통역사’에 이어 두 번째 프로그램 ‘생태 공학자’가 8월부터 진행되었다. 생태 공학자는 생태계 안에서 다른 생물에게 먹을거리와 서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동물들을 탐구하는 내용으로서, 각각의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미술기법과 연결하여 어린이들이 생태 지식과 미술

활동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9월까지 진행되며, 리움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⑤ 야생신탁 시민 모니터링단 포유류 흔적찾기 훈련 실시

2025년 8월 21일, 생명다양성재단은 야생신탁 오소리 생태연구팀과 협업하고 있는 시민 모니터링단의 역량 향상을 위해 포유류 현장전문가 하정옥 선생님을 모시고 포유류 흔적찾기 훈련을 실시했다. 해당 훈련은 현재 모니터링단이 관리를 맡고 있는 무인센서카메라 5개 중 2곳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탐사 중 연구진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은 오소리 흔적이 주변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청서, 고라니, 멧돼지, 족제비 흔적을 만났다. 야생신탁 당과 그 주변을 탐사하며 여러 생물들을 만나는 야생신탁 시민 모니터링단은 본 훈련을 통해 땅과 그 땅 위 야생을

만나는 새로운 소통 기술을 익혔다.



오소리가 땅벌집을 훼손한 흔적 ©황소정

⑥ 고운사 사찰림 산불피해지 자연복원 프로젝트 참여

고운사 사찰림은 지난 20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고운사 주지인 등운스님은 산림청이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인공조림 대신 산림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되도록 하는 자원복원을 선택했다. 생명다양성재단은 안동환경연합, 불교환경연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환경운동연합, 강릉원주대학교와 연대하여 고운사 사찰림의 회복탄력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자연 복원 계획을

수립, 장기 모니터링의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특히 사찰림 내 곤충 조사와 연구 동료 평가를 맡는 등의 책임을 맡았다. 재단은 ‘자연이 만드는 자신들의 세상’을 바라는 등운스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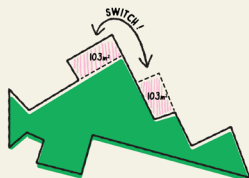
산불에 휩쓸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운사 풍경

⑦ 야생신탁 땅 변경

재단은 지난해 야생신탁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이웃이 살고 있는 건물이 야생신탁 땅에 걸쳐있고, 이웃집의 조상 묘가 땅 내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웃은 그곳에 오랜 기간 살아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수개월에 걸쳐

최대한 세심하게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야생신탁 땅 입구쪽과 맞붙은 이웃의 땅과 이웃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야생신탁의 땅 103㎡를 교환하고, 묘를 포함해 이웃이 점유하고 있는 모든 땅은 원상복구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이후 토지 분할 신청, 토지 지목 변경, 토지 교환 신청, 등기 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땅 교환이 완료되었다. 이에 야생신탁 땅 모양은 새로운 모양을 갖게 되었다.

야생신탁 땅 모양이 달라졌다!



토지 측량 과정에서 이웃집 건물이
야생신탁 땅에 걸쳐있다는 것을 발견

→ 협상 끝에 땅 교환
7월경 관련 행정 절차 완료 예정

뿌리와 새싹 소식 —

뿌리와 새싹 활동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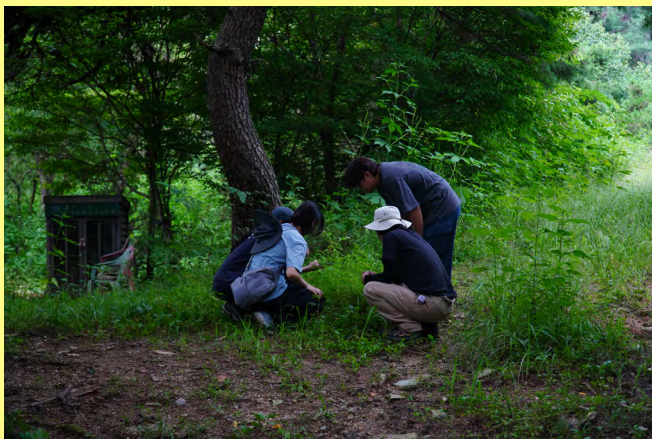
보다 많은 이들이 동물, 이웃, 환경에 대해 알고, 사랑하고, '실천' 하도록 하기 위해 생명다양성재단은 2025년에도 활동지원금 제도를 운영하였다.

올해 뿌리와 새싹 활동지원금을 신청한 팀은 총 38팀이며, 이중 15팀을 선정하여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한팀의 중도 포기로 총 14팀이 활동지원금으로 활동 중) 총 지원금은 약 1,500만원이며, 지원 금액은 활동 성격과 기간에 따라 2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하다.

2025년 활동지원금 선정팀들의 활동은

- 1) 주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 2) 기후미식
- 3)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조치
- 4) 소비가 아닌 나눔을 장려하는 장터 운영
- 5) 행동주의 예술활동
- 6) 땅 생태계 자연회복 실험

등으로 나뉜다.



서울의 자연 습지인 둔촌동 습지, 진관동 습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는 식빵(식물공부방)
소모임의 활동 모습



(왼쪽) 신규 소모임 따박따박의 활동을
돕기 위해 자연안내자로 나선 소모임
바이오필리안

한편, 이번 기회를 통해 35팀의 뿌리와 새싹 소모임이 새롭게 가입한 것도 무척 반가운 일이다. 이로써 한국에서 활동하는 뿌리와 새싹 소모임은 150팀이 다 되어간다. 기후 미식을 지향하며 먹거리를 다루는 팀, 땅을 돌보는 활동을 하는 팀, 예술가들로 이루어진 팀 등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활동을 하는 소모임들이 대거 가입하여 기대가 크다.

또한 새롭게 가입한 소모임들은 자연안내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배 소모임들의 가르침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이들의 상호작용은 뿌리와 새싹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활동지원금 제도는 더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해 실천하고, 그들이 뿌리와 새싹 안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들어 사랑과 실천을 위한 더 다양한 길을 함께 일구어 나가도록 하는 운영 목표를 기반으로 매년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zy@diversityinlife.org 담당자 박지연 연구원

도토리 서재



나무가 쿵 쓰러지면

(원제)When a tree falls



Kirsten Pendreigh 지음,

Elke Boschinger 그림,

성민규 옮김



길리북스, 2025



역자의 말 — 성민규 연구원

나무가 쓰러진 뒤 펼쳐지는 새로운 삶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책입니다.

책에서 중심 주제로 등장하는 ‘돌봄통나무’는 번역 과정에서 새롭게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제는 영미권에서 널리

사용되는 단어 ‘Nurse log’를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Nurse log’는 그동안 국내에서 ‘고사목’, ‘죽은 나무’등으로 번역되어 왔는데, 원 뜻을 살리면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생태주의적 관점을 잘 드러내도록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돌봄통나무는 그동안 숲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치워버려야 했다고 생각했던 죽은 나무가, 생태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숲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조명되면서 1970년대부터 생태학자, 환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쓰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작은 송곳벌부터 커다란
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생명체의 20~40%가
이 돌봄통나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주변의
돌봄통나무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 녹지의
나무들은 쓰러지기도 전에
‘위험수목’ ‘불량림’이라는
이름으로 베어져 사라지고,
숲에서는 ‘고사목 제거
사업’을 통해 끌어내려져
파쇄되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함께 태워지기도
합니다.

나무는 쓰러진 뒤에도
숲에 있는 다양한 생명을
길러내고 보살핍니다. 이러한

나무를 부러 끌어내려서
숲에서 제거하거나, 미리
베어버리는 일들이 이제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죽은 나무를
‘돌봄통나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함께 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후원

생명다양성재단은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며,
생명을 위한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에 생명다양성재단을 후원해주신 개인,
단체, 기관 및 기업입니다.

문의

조유정행정원 cho@diversityinlife.org

생명다양성재단 hello@diversityinlife.org

기업/단체 후원

글로벌벤처팀	농업회사법인(주)미실란	서울천치과	여수웅천중	위크플포레스 주식회사	유인원	재단법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 및 탐구 아시아재단	주식회사 엔제타
주식회사 웰든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	해담은강물영농조합법인					

개인 일시 후원자

Colette Koo	Ellen Park	Evelyn Koo	Irene Kim	RICHARD ZENITH	Sean S Hur	Tekkyu Lee	강지수와 39 명의 구독자
고서린	김란경	김수정	김숙현	도화지	문신중 그림다이어리	박선현	박준연
박혜령	방선훈	서경식	서재순	서정은	스처간 동물 신지은	안수오	양응규
어쩌다, 산소뽀	오수진	오정영	윤서영	이근영	이보람	임세미	최민혁
최영진	최은	판집지K 구독자	홍신	한강			

개인 정기 후원자

AN XUE	강경욱	강광성	강다나	강다인	강동웅	강동운	강미미	강미영	강민정	강민주	강민재	강병권	강성아
강정은	강숙	강연정	강영환	강유정	강은지	강은진	강인숙	강인숙	강현아	강현욱	강혜영	강혜인	강혜정
강혜진	강화정	경병문	게을매	고도영	고동석	고민진	고문심	고선미	고선아	고선주	고영라	고영숙	고영희
고은영	고지연	고창영	공수경	공인석	공희경	곽혜선	곽호빈	곽철진	구불주	구준희	구홍	권민선	권세현
권순고	권순오	권순원	권애나	권예림	권오석	권은불	권은숙	권은형	권주혜	권지선	권서혜	권혁남	권형선
권혜민	권혜민	권혜정	금정임	문태인	기선아	기혜정	김가람	김기을	김경순	김경아	김경진	김경환	김경호
김경희	김규한	김근수	김기숙	김기연	김나눔	김나연	김나영	김나영	김나영	김남규	김남준	김남희	김다연
김다영	김다은	김다은	김다정	김태림	김대선	김대영	김덕순	김도훈	김도현	김동우	김동현	김득주	김득주
김영학	김묘연	김미라	김미선	김미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옥	김미정	김미현	김민정	김민경	김민경
김민성	김민성	김민숙	김민우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백준	김별아	김병찬	김보라	김보람
김보미	김보민	김보민	김보연	김보영	김보현	김서람	김상도	김상민	김상태	김서린	김서을	김서현	김선경
김진린	김선불	김선영	김선영	김선한	김선홍	김선화	김선희	김성미	김세영	김소영	김소현	김소희	김소희
김솔	김송희	김수련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숙인	김준민	김솔기	김아영	김안나	김아름
김여림	김여은	김연경	김연신	김연식	김연옥	김연주	김연희	김영경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숙
김영찬	김영태	김영희	김예람	김예빈	김예원	김예은	김예지	김유경	김유정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윤	김윤경	김윤경	김윤진	김윤정	김윤희	김윤희	김윤희	김윤희	김으뜸	김은미	김은영	김은정
김은희	김용민	김용석	김인선	김인혜	김제연	김제영	김정민	김정숙	김정순	김정운	김홍정	김홍욱	김홍임
김주원	김주희	김주희	김지수	김지아	김지아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오	김지원	김지웅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호	김진주	김진향	김진홍	김찬희	김창원	김창원	김철민	김태우	김태이	김태정

김태형	김태환	김태희	김바늘	김하늘	김하영	김하중	김한결	김해솔	김해운	김형숙	김현숙	김현숙	김현아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제	김현지	김현진	김현진	김현진	김형준	김혜경	김혜경	김혜경	김혜린
김혜정	김혜정	김혜정	김혜정	김호숙	김홍시	김홍경	김희경	김희경	김희준	김희선	김희선	김희선	김희자
나경호	나승구	나경희	나승구	나현	나한주	남승주	남아를	노경희	노난희	노란	노명희	노수빈	노은영
노현정	노현정	노현정	노현정	노현정	노현탁	노혜정	류민정	류영아	류진아	미예원	맹의진	명랑	문경미
문장연	문장연	문영숙	문장연	문지경	문지현	민구홍	민영숙	민솔	민아진	민예지	민윤진	민화숙	박경원
박명주	박명주	박대원	박명주	박미경	박미경	박미순	박민경	박민영	박민주	박상돈	박상미	박성영	박서영
박성준	박성준	박성준	박성현	박세진	박세환	박소미	박소영	박수민	박수빈	박수연	박수정	박수진	박순금
박영훈	박영희	박영훈	박영희	박옥민	박용목	박용희	박유리	박유정	박윤서	박원수	박원	박은영	박은정
박재환	박재환	박재환	박재정	박재진	박정미	박정욱	박제인	박종영	박주원	박주혜	박지수	박지안	박지연
박진석	박진석	박진석	박진석	박진선	박진영	박진영	박체문	박태진	박하늘	박혜영	박향숙	박현선	박현숙
박혜원	박혜란	박혜원	박혜란	박혜원	박혜선	박혜순	박혜영	박혜진	박호원	박주리	방남식	방희선	배경은
배수영	배수림	배수예	배수림	배수예	배정미	배양숙	배우리	배현경	배광옥	백민영	백민우	백부기	백수진
백은진	백은진	백은진	백은진	백은진	백정미	백지연	백지원	백지원	백채은	백현주	백희경	백미	범희원
서동희	서동희	서미림	서동희	서미림	서보배	서보영	서승연	서아영	서연주	서유경	서은정	서은주	서은희
서정민	서정민	서정렬	서정순	서정렬	서주영	서준정	서진혁	서현정	서현주	석불준	석지현	석현수	신금희
장승훈	장승훈	장영숙	장수정	장영숙	장인진	장지원	장혜영	조은영	손다혜	손대신	손영신	손영란	손영준
손은지	손은진	손은희	손은진	손은희	손의숙	손재용	손정아	손혜진	송계순	송미경	송미라	송미화	송민지
송영아	송영아	송지은	송은희	송지은	송재연	송정희	송종원	송주희	송지은	송국화	신경준	신동준	신명숙
신민정	신민정	신사연	신사연	신선조	신수현	신연경	신은영	신은주	신정광	신정희	신지훈	신지훈	신지은
신혜원	신혜진	신혜원	신혜진	신희성	신금자	심유진	심재협	안진희	안경선	안다미	안태환	안동하	안민복
인수연	인수연	인수연	인수정	인유정	안재하	인정미	안종남	안지원	안진나	안진영	안하림	안원서	안원정

인현주	인홍근	인화영	인혜원	양경지	양동진	양만나	양혜은	양은석	양의중	양종훈	양희정	양희연	여성수
임수지	임연희	임예은	여선영	여호경	오경은	오나래	오로라	오미현	오미혜	오서영	오성준	오세문	오수민
오수진	오숙희	오영주	오유리	오윤정	오지	오인택	오정환	오정하	오정희	오진영	오희진	옥다혜	왕경민
홍로나	우근영	우하영	원혜영	유덕자	유성미	유성희	유수민	유연희	유용원	유은미	유은주	유지경	유창진
유재경	유주원	유지수	유지현	유준자	유환서	유원주	유혜영	유혜진	유환진	윤계임	윤광미	윤민정	윤병진
윤보민	윤성운	윤서정	윤종이	윤수민	윤수현	윤순웅	윤어진	윤은정	윤은진	윤준희	윤지영	윤진아	윤진주
윤태란	윤미호	윤혜연	윤희순	이경진	이경숙	이정은	이경주	이경준	이경호	이경화	이경화	이근정	이금란
이기영	이기정	이다희	이들원	이동희	이두원	이래현	이명섭	이명숙	이명옥	이명자	이명진	이문주	이문호
이미경	이미경	이미선	이미숙	이미정	이미정	이미희	이민서	이민선	이민슬	이민아	이민정	이병도	이보나
이부배	이복순	이상미	이상훈	이서경	이서린	이서인	이서진	이선진	이선영	이선희	이성화	이성일	이성희
이세연	이소영	이송이	이수린	이수연	이수정	이수정	이수지	이수호	이승은	이신용	이아인	이안숙	이연경
이영복	이영미	이영애	이영훈	이예복	이예승	이원영	이원재	이유경	이유남	이유민	이유하	이운서	이훈진
이홍	이은미	이은옥	이은옥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진	이은호	이재영	이재광	이재란	이재남	이재영
이재문	이재일	이장만	이정숙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현	이정혜	이종진	이종현	이주연	이주영	이주원
이주원	이주형	이주혜	이준구	이준정	이준용	이준호	이준희	이진민	이진진	이진수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혜	이지혜	이지혜	이지훈	이진미	이진선	이진우	이진옥	이진혁	이채연	이태임	이필숙	이하진
이한빛	이한샘	이한순	이해인	이현경	이현서	이현정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형미	이혜릴	이혜영	이혜진
이혜진	이홍경	이홍영	이화희	이화희	이호신	이호진	이훈호	이희보	임공수	임기옥	임단비	임미례	임서영
임성은	임세미	임소영	임시나	임영숙	임우람	임유선	임유정	임은주	임준웅	임지연	임창규	임채홍	임현수
임환숙	임환진	장경환	장경희	장다슬	장미경	장진미	장수인	장시화	장예원	장원채	장원정	장은서	장은진
정은수	정아권	정재민	정정순	정장이	정정화	정종업	정혜림	정혜원	정호석	정호정	정동근	전민지	전성기
전예원	전유정	전은이	전종만	전종화	전한숙	전혜정	정기영	정경희	정기용	정누리	정리경	정문기	정미연

정미향	정민영	정복희	정상일	정서문	정신영	정선인	정상우	정세방	정소영	정수영	정수형
정소희	정수미	정숙경	정숙철	정승은	정아름	정예란	정연주	정원	정유희	정유리	정윤경
정용광	정윤신	정은	정은정	정은희	정인혜	정인희	정제선	정영희	정지호	정지수	정찬술
정찬혁	정태훈	정혜숙	정혜진	정화연	조기연	조명재	조문희	조민경	조민정	조민규	조상현
조석현	조선영	조성민	조성운	조아라	조연정	조영오	조유정	조문행	조은경	조은희	조은옥
조은정	조은주	조정은	조종혜	조현서	조현정	조현주	주미선	주순옥	주영운	주아라	주우영
주현경	주현진	지은경	지은선	지경민	진관우	진서연	진수민	진수연	진효숙	진혜영	차명진
차미연	차은지	차주연	차한숙	차혜민	채선영	채희원	찬선이	찬수민	찬지현	찬유경	천혜정
최금선	최다예	최미나	최미선	최미영	최보윤	최서인	최상순	최승지	최영아	최연호	최윤정
최은경	최은별	최은정	최은희	최일숙	최재봉	최재영	최장신	최정민	최지연	최지애	최진우
최정순	최철한	최명순	최하나	최혜원	최호신	추아름	편향희	하나경	하신우	하나영	하승민
하지문	하현수	한계정	한나림	한미혜	한서은	한수영	한수현	한승석	한애경	한승혜	한영아
한지연	한지인	한현주	한혜인	해피빈	허문정	허새나	허용선	허은정	허한경	허지연	현소영
한유정	홍리리	홍민희	홍성희	홍영신	홍예인	홍옥선	홍정민	홍정화	홍진주	홍지연	홍효정
황경화	황광수	황명희	황미나	황상원	황상화	황수연	황수정	황유진	황은남	황윤숙	황재호
황정희	황지상	황지현	황지혜	황태환	황혜영	황혜준					

강원대 동물생태 및 유전체학연구실

그리스그레이

김리복스

김기훈(채백고스런하)

김동건자연과학센터

꽃파는 책

노무그릅지도

돌고래상징

따라 (과학책방)

루이스의 커스텀 영어

마야황아리

무구메이커리

문화다양성연구소 띠	법세기획	복플렛
비엔케이	뿌리와 새싹 '그린친구'	뿌리와 새싹 '피워에너지'
수산업·식과리협의회(ASC)	스튜디오 친변만화	인녕 아디
이산국어영어학원	정석주유소	케프리움
피그렘	현대콘베아	호야책방
회한한국어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후원해 주시는 네티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후원 정보가 없는 경우 입금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2024/12/04~2025/09/02의 후원(입금 일자)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제작
생명다양성재단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32길 30
우편번호 03719

Editor 김산하, 안선영, 박지연, 성민규

Designer 이상미

Cover illustration 정창윤

전화, 팩스 | 02-336-4514

이메일 | hello@diversityinlife.org

홈페이지 | www.diversityinlife.org

© 2025.생명다양성재단. All Rights Reserved



이 뉴스레터는 친환경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인쇄본이 아닌 온라인 구독을 원할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